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열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길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고 믿고 미국으로 이주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은 위험한 공장이나 비좁은 공동주택에서 일했다. 오늘날은 그만큼 나쁘거나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떠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정부로 일하러 가는 여성들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은 특히 영타리 정보에 현혹될 위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이 종종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일종의 노예계약을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남서부 사막의 국경지대에서 힘든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다. 하지만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노동력 거래는 또 다른 종류의 무역과 같아서 양쪽 모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인 이익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와 같다. A라는 사람은 일을 해서 보수를 받기로 하고, B라는 사람은 A가 하는 일과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한다. 이런 교환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A라는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은 좋건 나쁘건 그 계산법의 일부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은 이민을 가면서 조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간다. 어느 나라든 반드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세계은행은 아이티(Haiti)의 대학 졸업자 중 84퍼센트가 아이티에 살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이티는 UN이 생활수준을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177개국 중 153위다. 많은 아이티의 부모들은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떠난다. 해외에 더 나은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는 발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티는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다. 따라서 교육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이나 증권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동하면 종종 조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보낸다. 니카라과에서는 이러한 송금이 2004년 국민소득의 18퍼센트에 달했다. 여러 나라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송금은 가정의 필수품 구입에 사용되므로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민자들은 현지인들이 하고 싶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

[나]

나는 인간이 무역, 종교, 이주 그리고 제국의 지배에 의해 다른 공동체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며 감탄했다. 아시아의 무역상들이 상품목록을 적어서 들고 다녔던 작은 점토판은 블랙베리(Blackberry)가 되었다. 당나귀와 대상의 행렬은 컨테이너 선박과 화물수송기가 대신하고 있다. 한줌도 안되던 과거의 탐험가들은 현재 수백만에 달하는 관광객이 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 위치를 산출하는 범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안내를 받는 제트여객기를 타고 높이 떠간다. 서울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시베리아와 중국의 해안선이 눈에 들어올 때 나는 세계의 연결성이 이 대륙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의 상호연결성이 낳은 폐해는 나의 감탄을 압도한다. 세계무역의 흐름에 문을 연 모든 나라들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상호 연결성은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외면해 왔다. 빈곤국가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계속 하락해 왔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화를 걸어본 적도, 태어난 곳을 벗어나 본 적도 없다. 거의 20억의 사람들이 내가 탄 비행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식수, 초등교육, 공공의료,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일부 원인이 되어 농업이 파산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뒷면에 계속 >

이 어린이들은 말없는 비난의 눈길로 화려한 서방을 응시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잊혀진 거주자들은 그저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범죄라는 불안의 근원일 뿐이며, 병원균의 매개체일 뿐이다. 2005년 유엔은 국제 이민자의 수가 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세이고, 가난한 이민자들의 물결을 막기 위한 이민법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1,120킬로미터의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서구 세계 전반의 반이민 정서를 말해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저개발 국가로서는 이주자들이 송금한 돈이 귀중한 수입이지만 대규모 이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와 대학원 졸업 학력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 교육받은 인력의 이주는 가난한 국가의 경제가 후퇴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2004년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1억 8,500만 명이 실직 상태였고, 세계 28억 근로자의 절반은 하루 2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격차는 66배까지 벌어졌고, 급여가 더 나은 일자리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절망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가려는 시도를 한다. 2006년 상반기 9개월 동안 이민을 희망하는 약 2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해 세네갈어로 이렇게 말했다. “Barcelona ou barxax, 바르셀로나 아니면 죽음을!”

[다]
 “문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희랍어로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살라도는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방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힐랄이 말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일컫는 일반명사란다. 서로 다른 종족과 서로 다른 종교 그리고 서로 다른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지. 그러므로 ‘에티오피아’라는 일반명사는 확장적인 성격과 내포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지. 반면에 ‘소말리아’라는 말은 달라. 소말리아는 아주 구체적이지. 그 누구도 소말리아인이거나 소말리아인이 아니지. 둘 중의 하나뿐이야. ‘에티오피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구분이 불가능하지.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나이지리아인’도, ‘케냐인’도, ‘수단인’도, ‘자이레인’도 모두 마찬가지지. 모두 구분이 불가능하지. ‘에티오피아’라는 말의 의미는 검은 인종의 땅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자이레가 포르투갈어인 것 아니? 강 이름을 딴 포르투갈어지. 아마도 포르투갈의 한 탐험가가 우연히 상륙하게 된 나라의 이름을 따와 지은 것이겠지. 그 이름 속에는 ‘진정으로 그 민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단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야. 니제르 강 이름을 따서 루가드(영국의 작가)의 연인이 지은 거지. 수단 역시 흑인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개념상으로 볼 때 일반명사와 구체명사의 싸움일 뿐이랴오. 소련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단결기구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모두 일반명사를 지지한다고요. 구체명사를 지지하지 않지. 왜 그런 줄 아시오? 자기들도 일반명사에 속해 있기 때문이랴오.”

[라]
 태고의 국민적 공업들은 절멸되었고, 또 낯이 절멸돼 가고 있다. 이 공업들은, 그 도입이 모든 문명 국민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새로운 공업들에 의해, 즉 더 이상 본토의 원료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지대의 원료를 가공하고 그 제품이 자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들에서도 동시에 소비되는 그러한 공업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국산품에 의해 충족되었던 낡은 욕구들 대신에 새로운 욕구들이 들어서는데, 이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먼 나라 토양의 생산물들이 필요하다. 낡은 지방적, 국민적 자급자족과 고립 대신에 국민들 상호간의 전면적 교류, 전면적 의존이 들어선다. 그리고 이는 물질적 생산에서 그렇듯 정신적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별 국민들의 정신적 창작물은 공동 재산이 된다. 국민적 일면성과 제한성은 더욱 더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국민적, 지방적 문학들로부터 하나의 세계문학이 형성된다.

[마]
 눈이 많이 와서
 산옛새가 별로 날여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맹이 예데가리밭에서
 하로밤 뽀오한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명에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으젓한 마음을 지나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여늬 하로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밭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밭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꿈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넷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체기를 하면 산님옛 마을까지 들렀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쨍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샷방 짹짹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素朴)한 것은 무엇인가

[마]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근대화의 산물인 민족주의가 스스로 자신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동질화하고 나아가서 그런 지역
 적 조우들과 그것이 함축하는 ‘이질성’을 억압했다.”고 말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이 지역적 삶의 질적 리듬과 구체적 가능성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동질적이고 텅 빈 시간”으로 대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합의
 과정은 지역적 삶이 그냥 텅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주변적이고 후진적이며 특수한 삶으로 낙인찍히는 과정이기도 했
 다. 그 기준이 된 것이 바로 문명과 발전이라는 서구적 근대성의 원리였다. 이 서구적 세계화의 원리는 근대 국민국가들 간의 경쟁의 원
 리이자 지역을 통제하는 원리로 기능했다. 한편으로 서구적 근대성은 문명과 발전을 이념적 목적으로 삼고 국민/민족들 간의 경쟁과 각
 축을 통해 지배와 통제의 위계구조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논거로 기능했고, 다른 한편 이 기준이 지역에서 작용할 때는 “문명과 진보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동질화와 동일시하고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위해 지역적인 것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의식”으로 기능
 했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